

넥센그룹 월석(月石)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공헌*1)

김홍수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주저자 khsoo@pusan.ac.kr)
정대울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교신저자 dyjeong@gnu.ac.kr)

… 초 록 …

본 연구는 부산·경남을 기반으로 국내외 ‘타이어 강’의 브랜드를 가진 넥센그룹 월석(月石)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그 정신의 확대로서 사회적 공헌을 탐구한다. 2018년 한국경영학회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진주를 선포한 이후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진주시 지수의 승산마을에 기업가정신교육센터(옛, 지수초등학교)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진주가 지역특화 사업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진주가 삼성, 효성, LG그룹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를 배출했다는 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에 본가를 둔 넥센그룹 월석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게 된 배경과 기업가정신의 요체, 나아가 사회적 공헌을 탐구한다.

강병중 회장은 1960년대 중반 일본으로부터 중고 덤프트릭 수입과 판매로부터, 1970년대 재생타이어와 타이어튜브 사업으로 한국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1999년 우성타이어 인수와 2000년 넥센타이어로 사명 변경 이후 매년 약 20%대의 고속 성장으로 국내 타이어 부문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월석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집념의 도전정신, 인재중시의 스피드경영, 지역과 글로벌을 함께 추구하는 상생정신, 겸손과 학습의 혁신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모교 동아대 150억 발전기금 등 월석부산선도장학회, 넥센월석문화재단, KNN문화재단을 통해 나눔경영의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어 : 넥센그룹, 강병중, 기업가정신, 스피드경영, 상생정신, 혁신성, 사회적 공헌

* 이 글은 발표를 위한 미완의 초고로서 출처 등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서 론

2018년 한국경영학회가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한 이후 진주시 지수 승산마을의 기업가정신교육센터(옛, 지수초등학교)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진주가 기업가정신 수도로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 효성, LG그룹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를 배출했다는 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을 찾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 경남 진주와 인접한 의령에 고향을 둔 삼성 이병철 회장과 효성 조흥제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진주 지수가 낳은 대표적인 기업가인 LG그룹/GS 그룹을 다룬 연구나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수 있다.

효성그룹 조흥제 회장에 대한 연구는 그의 탄생 100주년(2005년)을 계기로 기업문화와 성과를 조명하고 그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이재달·정대율, 2022; 김덕현 등, 2020). 또한 2021년 현재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 정신’만을 다룬 연구논문만 해도 8편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김덕현 등(2020)은 ‘실천주의, 인화주의, 정도주의’를, 정대율(2021)은 ‘개혁정신과 실천주의, 인화중심 정도경영, 유교적 가족주의와 인재경영, 기술혁신과 품질경영, 사업보국과 사회적 공헌’을 제시하고 있다.

‘타이어 강’은 넥센그룹 월석(月石) 강

병중 회장이 평생 타이어 사업과 경영에 고집스럽게 펼쳐온 성과를 대표하는 명칭이다. 넥센그룹은 (주)넥센(1968년 설립, 1977년 흥아타이어공업(주), 2002년 8월 현재의 법인명임. 재생타이어, 튜브 제품, 골프공-Saint Nien, Bigyard- 생산), 넥센타이어(주)(1942년 흥아고무공업(주) 설립, 2000년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사명 변경, 세계타이어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과 130여 국가 수출), 주식회사 KNN(1994년 PSB 부산방송 개국, 2005년 부산·경남 전 지역 확대, 주식회사 KNN으로 변경), 넥센L&C(2010년 설립. 수송, 3PL, 국제물류주선 등 GLOBAL 종합물류회사), 중국(칭다오 4개 공장), 체코공장(2018), 월석부산선도장학회, 넥센월석문화재단, KNN문화재단 등이 있다.

2022년 기준 넥센그룹의 주요 연매출은 넥센타이어 약 2조 5천억, (주) 넥센 약 7천억, KNN 약 600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의하면 월석 강병중 회장은 국내 500대 기업의 대표이사 중 취임 이후 2021년 12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가져온 인물 1위로 선정되었다. 그는 1999년 넥센타이어 회장 취임이후 2021년 12월 6544억 원으로 무려 5451.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뉴시스, 2022. 8. 16).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 연구를 발굴 차원에서 경남 진주시 이반성

길성리에 본가를 둔 넥센그룹 월석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정신의 형성배경과 기업가정신의 핵심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탐구이다.

II. 월석 강병중 회장의 집안 환경과 성장과정

월석 강병중 회장은 1939년 7월 25일 강대춘(姜大春)공과 달성 서씨 삼남으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진주(진양)이고, 박사공파 26세 손이다. 강병중 회장이 태어날 당시 본가는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길성리 평동마을(현재 길성리 755번지)로서 원래 500석지기였다. 그런데 강병중 회장이 태어난 곳은 마산시 성호동 43번지였다. 이는 아버지가 마산에서 큰 집을 지어놓고 곡물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성병두, 2021,293).

월석의 조부인 희수(熙秀 1867~1929)공은 자는 자옥(子玉)이고, 호는 일차당(一此堂)이다. 이름 난 선비로 당시 대부분의 지리산권 강우학파(江右學派) 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벼슬을 멀리 하고 경의(敬義)와 실천을 중시했으며,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부는 효행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이였다는 기록이 그의 문집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사친지효(事親之孝) : 아버님께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하고

모상읍혈(母喪泣血) : 어머님 초상 때 피눈물 흘리면서 애통해 하였고
삼년은거(三年隱居) : 삼년동안 은거 생활로 충효 다 하였도다.

수지독보(守志獨步) : 독보적인 존재로 큰 뜻을 가지고
일세근검(一世勤儉) : 한 평생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면서
력색수치(力穡遂致) : 온 힘을 다한 결과 마침내 큰 꿈을 이루어
거부사현(巨富事現) : 큰 부자가 되어 현실로 나타났다.

부친 대춘(大春 1893~1954)공은 자가 형가(亨可)이고, 500석 지기를 하는 부농이었다. 길성리 인근 별판에는 물론이고, 인근 면과 다른 군에까지 소유 토지가 있었다. 대춘 공은 재물을 아끼고 아껴가며 그 넓은 농토를 거의 당대에 장만했다. 절약하는 것이 돈을 버는 만큼의 재산을 늘린다는 신념에 철저했던 인물이었다. 강병중 회장 출생 당시 부모는 이반성면 길성리에 본가를 두고 마산 성호동에 1천여 평의 넓은 토지를 구해 큰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었다. 성호동 집에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추곡을 실은 화물차가 수십 대 줄을 지어 왔다고 한다. 마산은 1899년 개항으로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되던 곳이었다. 월석의 부모가 마산에서 생활한 것은 지주들이 곡물사업에 좋은 여건을 갖춘 도시였기 때문이다.

월석 강병중 회장은 생후 3년 1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어머니의 이른

작고로, 월석은 고향의 외갓집에 맡겨져서 외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외할머니와 지내면서 해방을 맞았고, 초등학교에 가야할 7살이 되자 길성리 바로 이웃마을인 가산리에 있던 이반성국민학교 분교에 입학했다. 월석은 외할머니의 보살핌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다. 월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50년에 6.25가 발발했다. 월석과 그의 가족들도 전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집안 곳곳에 큰 피해를 입었다. 월석은 1952년 2월 진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마산동중학교로 진학했다. 월석이 마산동중학교를 택한 것은 성호동 집에서 가까웠고, 마산에서 입시를 제일 먼저 치르는 1차 중학교였기 때문이다. 농촌을 떠나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했으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다. 큰 집은 폭격으로 반쯤 파괴되어 있었고, 파괴되고 남은 방들 가운데서 크고 좋은 방은 세를 놓아 가게에 보태야 했다. 그는 부엌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500석 지주였던 부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해방 후 정부의 농지개혁 조치로, 그 많던 전답은 모두 소작농들에게 넘어가고, 정부가 발행한 지가증권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부친은 해방 후 농지개혁을 실시할 무렵 길성리로 귀향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한 푼 두 푼을 아껴가며 힘들여 일

귀넌 그 많던 전답이 몰수되자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월석의 나이 겨우 15살, 중학교 2학년 때 평생 일궈온 재산이 너무나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뒤 울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61세였다. 월석은 부모를 잃어 정신적인 공허함 속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졌다.

1955년 2월 월석은 마산동중학교를 졸업한 뒤 마산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마산고는 그 지역에는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인문계 고교로 진학한 것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 진학에의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월석은 인문계 고교를 졸업 후 돈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으나, 신체적인 조건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공군에 입대하고, 제대는 진해 공군본부에서 했다. 1960년 군복무 시절 틈틈이 공부했던 덕분에 부산에 있는 동아대 법대에 입학했다. 고시공부를 해서 법조인이 되고자 했다. 대학 입학금과 1학년 등록금은 큰형수의 지원으로 가능했지만, 2학년부터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사법시험 공부도 중단하고 먼 친척이 운영하는 ‘중앙운수’라는 화물운수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월석의 삶에서 첫 직장이 화물운수회사라는 점은 그가 후일 중고덤프트럭, 화물차운수, 용달차 사업에 유무형의 자신이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 후 월석은 동아대 바로 밑에 있던 부산교도소 아르바이트를 했다. 약 2년 동안 학교의 휴학 후 주간에서 야간으로 옮겨 약 6년 만에 졸업을 했다.

대학 졸업 약 3개월 후, 고향 마을의 세 살 아래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다. 그의 나이 26살이었다. 부인 김양자 여사 집안은 4형제였고, 부친은 둘째였다. 형제들이 모두 길성리에 함께 살았는데,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 장남만 고향에 남겨놓고 3형제가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가서 성공했고, 장인만 해방 후 귀환동포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다. 처갓집은 장인이 귀국한 후에 논도 많이 사고 정미소도 세워 농촌에서는 부잣집으로 소문이 나있었다. 특히 일본에 남은 장인의 형제들이 사업에 성공했다. 이는 월석이 일본 중고트럭 수입판매 사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김 여사는 결혼할 당시에는 장인과 일본 삼촌들 고향에 육영사업을 위해 거액을 들여세운 이반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장인이 이 학교 이사장이었는데, 약 10년 후부터 월석이 이 사장을 이어받아 활발한 장학사업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부산·경남에서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Ⅲ. 월석 강병중 회장의 사업 출발과 발전과정

월석 강병중 회장의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사업의 기반을 다진 단계로서 1960년대 중순 일본으로부터 중고 덤프트럭 수입·판매로부터 1970년대 삼륜차 사업까지다. 두 번째 단계는 홍아타이어를 인수한 이후 재생타이어와 타이어 튜브 사업을 통해 국내외 사업을 확장한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00년 홍아타이어가 우성타이어를 인수, 사명을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로 변경 이후 오늘의 넥센그룹을 이룬 시기이다.

월석 강병중 회장의 사업 출발은 김양자 여사와 결혼 직후였다. 그가 결혼 후 고심해서 선택한 사업은 일본으로부터 중고 화물 및 트럭의 수입판매였다.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붐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토목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국내의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월석 강병중 회장은 일본 중고덤프트럭 수입에 주목했다. 전국적으로 개발 붐에 비해 필수적인 덤프트럭은 국내 기술로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월석은 처가의 재정 지원과 일본 처삼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의 중고덤프트럭 수입·판매로 큰 성공을 거둔다. 당시 일본은 5년 이상 사용한 차는 모두 법적으로 폐차를 시키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한국에 들여오면 새 차나 다름없

이 쓸 수 있었다. 한 대를 팔면 약 50만원이나 되는 이익이 났다. 일본 중고덤프트럭 수입 사업의 성공은 남들보다 먼저 덤프트럭 수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일본 트럭의 품질이 매우 우수했다는 것도 성공 요인이었다.

덤프트럭 수입·판매 사업 경험에 힘입어 월석은 1967년 운수회사 옥정산업(주)을 설립했다. 옥정산업(주)은 우리나라에서 기업규모를 갖춘 최초의 화물운수회사였다(백승진, 2012, 387). 흔히 말하는 지입운수회사였다. 월석의 운수회사에는 많은 차주들이 찾아왔고 운수사업은 날로 번창해졌다. 옥정운수(주), 포드화물자동차(주) 등 여러 회사를 만들었다.

또한 월석은 1970년대 초 용달차(用達車) 운수회사를 차려 대성공을 이루게 된다. 용달차는 앞바퀴 하나와 뒤 바퀴 두개 달린 삼륜차다. 월석은 일본에서 세 바퀴 달린 조그만 짐차가 골목을 자유자재로 다니는 것에 착안했다.¹⁾ 이렇게 해서 월석은 이 삼륜차에 쓸 용(用), 통할 달(達) 자를 써서 ‘용달차(用達車)’란 이름을 직접 지었다. 용달차 운수업은 큰 인기를 끌면서 기아용달사, 옥정용달, 새기아용달, 삼미용달 등등의 운수회사를 계속 만들어나갔다. 월석은 전

국적으로도 대규모인 용달차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월석의 덤프트럭과 용달차 운수회사에 지입 된 차량은 모두 850대나 되었다.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월석은 사업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월석 사업의 두 번째 단계는 재생타이어, 타이어 튜브 사업으로의 전환과 발전이다. 월석은 1973년 4월 당시 부산 남천동 1,00평쯤 되는 홍아타이어 재생타이어 공장을 인수, 홍아타이어 공업(주) 법인을 설립했다. 기존 운수서비스 사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했다. 기존 운수관련 차량은 전원 팔았다. 후에 넥센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넥센은 그렇게 출발했다. 그 후 홍아타이어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삼우빵 공장(3,200여평)을 매입하여 공장을 확장하여 재생타이어와 타이어 튜브 제조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반여동 공장 이전을 계기로 월석은 재생타이어 생산과 함께 타이어 튜브 제조를 전문화하여 또 한 번의 승부를 걸었다. 타이어 튜브 제작을 전문화로 특화하여 품질을 높였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튜브 사업이 국내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고 중동지역의 수출로도 확대했다. 훗날 월석은 “사람이 일생 동안 몇 번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결혼 직후의 중고덤프트럭 수입과 운수업이 첫 번째 기회였다면, 두 번째 기회는 반여동 공장 매입이

1)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웬만한 집은 우마차, 즉 말당나귀 노새가 끄는 ‘말구루마’(마차)와 소가 끄는 ‘소구루마’(우차)가 다 실어 날랐다. 이 삿짐과 연탄, 각종 곡식, 김장용 무와 배추에서부터 공사용 모래, 자갈, 블록 등의 운반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운송수단이였다.

었다.”고 회고한바 있다(김주완, 2014, 76). 그 만큼 반여동 공장 매입은 그의 사업발전에 여러 가지로 전기가 되었다. 국내 뿐 아니라 중동에서 ‘홍아’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면서, 1970년대 중반 국내 기업의 각종 제품을 대신 수출하는 중개무역인 종합상사를 통해 충분한 이익을 남기면서 수출을 할 수 있었다.²⁾

또한 월석의 사업은 당시 일본의 3대 재벌의 하나인 스미토모(住友)의 계열사인 스미토모 고무(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와의 기술제휴를 계기로 일본의 기업문화,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을 배웠으며, 중동 수출에 이어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확장하게 된다. 1982년 미국 진출 첫해 2천만 불 실적과 함께 점차 발전하여 홍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무려 40%나 됐다.

이후 월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타이어쇼는 물론 독일 에센쇼의 세계적인 박람회에 참석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때 외국 바이어들이 월석에게 ‘타이어 강’이라는 별명도 지어 주었다. 월석의 튜브 사업은 날로 번성하여 김해안동공단에 약 2만평 규모의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 튜브공장을 준공했다. 1980년대 후반에 튜브로 수출 1억불, 매출 1000억의 회사로 성장했다.³⁾

2) 1975년 5월 삼성물산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대우실업, (주)쌍용, 국제상사, 한일합섬, 효성물산, 반도상사, SK, 삼화, 금호실업, 현대 등이 뒤를 이어 종합무역상사가 됐다.

3) 굿이어(Goodyear), 파이어스톤(Firestone), 피렐리(Pirelli) 등 세계유수의 타이어메이커에 납품하게 된다.

이후 튜브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2000년도 중국에 공장을 지어 중국 60%, 국내 40%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2002년 홍아타이어공업(주)에서 (주)넥센으로 법인 변경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1994년 월석은 부산상의 회장을 맡아 3선 연임(9년)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발전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광역경제권을 주장하고, 실제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 삼성자동차 유치, 중국 칭다오에 60만평 규모의 부산전용공단도 성사시켰다. 월석의 두 번째 사업은 재생타이어로 시작한 홍아타이어공업은 타이어튜브를 넘어 솔리드타이어, CMB, 골프공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 그 자체였다(강병중, 2012, 117). 또한 동남권 경제벨트 추진과 중국시장 확보 등 기존 사업성과를 지역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추진했던 시기였다.

월석 강병중 회장의 세 번째 사업 전환은 1999년 우성타이어 인수와 2000년 넥센타이어(주) 출범이다. 당시 홍아타이어공업이 신생타이어를 제외한 재생타이어, 타이어튜브, 그리고 타이어에 들어가는 아이템과 솔리드타이어까지, 한마디로 타이어 관련 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석은 주위의 우려에도 우성타이어를 신속하게 인수하여 첫해 143억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출발로 매년 세계 타이어업계 최고수준의 성장률로, 전 세계 130여 개

국, 250여 개의 딜러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켰다(강병중, 2012, 130).

이 시기 월석은 중국 칭다오 부산전용 공단에 4개의 타이어 관련 공장(2003년 청도넥센상교유한공사와 중국 청도넥센전장유한공사, 2006년 청도넥센기계유한공사, 2008년 중국 청도넥센운대유한공사)을 증설했다. 또한 기존 양산공장에 UHP타이어 신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2012년에는 18만평 규모(1조 2천억 투자)의 첨단시설과 친환경의 창영공장 시대를 열었다. 2018년부터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체코 자테츠 지역에 20만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 부산경남의 대표 언론인 KNN을 인수하여 지역문화예술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팀의 타이틀 스폰서, 국내외 자동차 경주팀 후원, 각종 골프대회 개최, 유럽 프로축구를 활용한 유럽지역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강병중, 2015, 243). 이런 넥센의 힘은 월석이 국내외 연구기능(서울, 미국, 중국, 독일 등) 강화를 통한 첨단제품 생산의 기반과 브랜드화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린타이어와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IV. 월석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정신

1. 집념의 도전정신

개척정신과 노력은 성공한 기업가의 인적 특성으로 기업의 변화관리와 혁신 경영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이다(윤재홍 등, 2009, 37). 월석 강병중 회장의 기업경영은 한마디로 ‘집념의 도전정신’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60년대 일본 중고트럭 수입판매, 홍아타이아공업에서 (주)넥센으로 성장과정인 재생타이어, 타이어튜브, 솔리드타이어, CMB, 골프공 등 그 자체가 도전과 개척정신이었기에 가능했다(강병중, 2012, 117). 그의 집념의 도전정신은 그가 1969년 로타리클럽에 가입하면서 스스로 작명한 ‘월석(月石)’이란 호 담긴 뜻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돌을 가져온 것에 착안, 단순한 달의 암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개척하며, 현실과 맞부딪치면서 과학적 사고로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자는 결심이었다. 2010년 국내 최초 ‘타이어 렌탈’ 비즈니스 모델 도입과 성공도 그의 집념의 도전정신이 낳은 결실이었다.

2. 인재중시의 스피드경영

강병중 회장은 기업의 미래는 인재육성임에 달렸으며, 세계최고의 글로벌 기업은 바로 열정과 창의의 인재육성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직원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꼽고 있다(강병중, 2012, 131). 강회장은 넥센(NEXEN)은 ‘다음 세기’를 뜻하는 ‘NEXT CENTURY’의 준말로, 다음 백년을 책임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할 기술력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한다는 언급에서 그의 인재중시 경영을 알 수 있다(강병중 회장 홈페이지). 이런 인재중시의 경영관은 한번 결정한 것은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는 스피드경영으로 이어진다. 강병중 회장의 스피드경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발 앞서 새로운 사업을 빠르게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일본 중고트럭 수입판매, 용달차 운영, 타이어튜브의 중동과 미국진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한번 결심하고 결정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 실적을 도출한다는 점이다. 1999년 우성타이어 인수 후 1년 만에 143억의 흑자로 돌리고 매년 20% 내외의 성장으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킨 것이 대표적이다(안재홍 등, 2001, 3). 강회장의 스피드 경영은 경영진에 대한 무한 신뢰와 직원과의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 시대에 앞선 과감한 투자를 통한 고부가 가치 상품의 개발 등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백승진, 2012, 430).

3. 지역과 글로벌 기업을 추구하는 상생정신

강병중 회장은 주로 부산·경남을 근거지로 경제활동을 해왔다. 그는 첨단기술과 판로개척을 위해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기업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부산·경남에 기업을 확장하는 진정한 지역과 글로벌 기업을 함께 추구하는 상생정신을 발휘해 왔다. 그의 상생정신은 1994년부터 12년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3연 연임하면서 부울경 동남권경제권(동남권 산업벨트), 삼성자동차와 한국선물거래소 부산유치를 성사시켰던 활동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2012년 1조 2천억원을 들여 넥센타이어의 침판 시설을 갖춘 창영공장 시대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4. 겸손과 학습의 혁신성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을 만나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상은 그 온화함과 겸손이다. 또한 수시로 메모하는 모습이 다. 사람과 경영환경의 모든 것에 겸손과 학습은 그의 사업 시작에서 그룹의 회장이 된 지금도 한결같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용달차(用達車) 구상, 스미토모 고무와의 기술 제휴, 2000년 넥센타이어 사업 추진 등 오늘날 넥센그룹을 짧은 기간 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가장 밑 바탕엔 겸손과 학습의 혁신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인생철학인 ‘천고마비’(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비운다)는 이를 상징한다.

V. 결론: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공헌으로

윤석 강병중 회장의 기업가정신으로 집념의 도전정신, 인재중시의 스피드경영, 지역과 글로벌 기업을 추구하는 상생정신, 겸손과 학습의 혁신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월석의 기업가정신은 2000년 이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석은 넥센월석문화재단, 월석부산선도장학회, KNN문화재단 등의 이사장을 직접 맡아 교육, 학술,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월석의 이런 사회적 공헌 정신은 넥센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가치로 이웃, 환경, 건강, 글로벌, 청년(N'ergy: Neighbor, Environment, Recover, Global, Youth)을 설정하고 국내외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모교 동아대 150억 기부는 그의 사회적 공헌의 대표적 사례다.

참 고 문 헌

- 강병중(2008),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이미디어.
- 강병중(2012), 넥센타이어 70년의 길 1942-2012, 넥센.
- 강병중(2015), 부울경은 하나다, 산지니.
- 강병중(2020),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미디어썬.
- 김덕현, 유동희, 정대율(2020), 남명 조식의 경의사강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35(2), 61-68.
- 김동기(2017), 한국의 CEO 70인, 현대경영사.
- 김민수 등(2012), 부산, 과거의 창으로 미래를 말하다, 부산발전연구원.
- 김주완(2014), 김주완이 만난 열두명의 고집인생, 피플과워.
- 리베카 헨더슨 지음/임상훈 역(2021), 자본주의 대전환, 어크로스.
- 백승진(2012), 부산경제 위한 강병중 회장의 집념, 개정판, 울간부산.
- 성병두(2021), 성병두의 부산시정야사-인물편-, 미디어썬.
- 알렉스 에드먼스 지음, 송정화 역(2021), 파이코노믹스, 매일경제신문사.
- 윤재홍 안기명 신현범, 신봉준, 박동진(2017), 현대경영학원론 제5판, 박영사.
- 윤재홍·안기명·안영면(2009), 현대경영학원론 제3판, 박영사.
- 이상호, 정대율(2022), LG 그룹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유교적 뿌리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경영사학), 37(1), 5-33.
- 이재달, 정대율(2022) 효성그룹 조흥제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이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경영사학), 37(3), pp. 49-81.
- 정대율(2021),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 강병중 회장 홈페이지(<http://www.bjkang.co.kr/w/intro/intro1.asp>)
- 뉴시스, 2022. 8. 16.